



## 칭찬합니다

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. 이번 주인공

서울남부지검 **이윤석 검사** 는

평소 배려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직원들과 사건 관계인을 대하였으며, '19년 수능일에는 미결수로 구치소에 있던 수험생 피의자가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 무사히 수능을 치른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.

아래는 이윤석 검사에게 온 편지 중 일부입니다.

... 사건의 중대함을 떠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해주셨던 모습 역시 인상적이었고... 해 뜨기 전 어슴푸레한 수능일 새벽에 직접 구치소와 고사장까지 나오셔서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을 땐 마치 든든한 형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...

...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인생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검사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... (감사편지 중...)

##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 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

“이 길은 예전에 달리던 길이에요,  
달리기 위해 달리는 길이 아닌  
즐기기 위해 달리는 길이었어요.”

영화 '카(Cars)' 中



12월의 추천영화 **카**  
(2006년 개봉 / 감독 존 라세터)는

레이싱 우승과 화려한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스포츠카 '라이트닝 맥퀸'(목소리 오웬 윌슨 분)이 우연히 '래디 에이터 스프링스'란 한적한 시골마을을 방문하게 되고, 그 곳에서 서로 도와가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여러 자동차들을 만나게 되면서, 인생은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경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소중한 여정인 긴 여행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.

저물어 가는 2019년, 씬 없이 달려온 발걸음을 늦추고  
천천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 
주변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?

## 간추린 청렴 소식

### [1] 부산지검, '기관장 청렴강의' 실시

부산지검(검사장 고기영)은 '19. 11. 5.(월) '청렴은 경쟁력이다'라는 주제로 전직원 대상 '기관장 청렴강의'를 실시하였습니다.



전 세계 청렴관련 주요사례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,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고 하네요 ^^

### [2] 의성지청, '청렴 아이디어 공모전' 실시



의성지청(지청장 손진욱)은 '19. 10.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을 선정기준으로 '청렴 아이디어 공모전'을 개최하여 '청렴 아침편지 실시 안'을 채택하였습니다.

직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, 청렴관련 표어·사례 등과 함께 청 내 주요 알림사항을 전달한다고 하네요 ☆

### [3] 의정부지검, '신규직원 청렴교육' 실시

의정부지검(검사장 구분선)은 '19. 10. 18.(금) 신규직원의 올바른 공직관과 청렴소양 함양을 위해 '신규직원 청렴교육'을 실시하였습니다.



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배경지식과 업무 소개 등도 함께 이루어져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을 도왔다고 합니다 ♪

### [4] 부천시청, '공무원 행동강령 평가' 실시

부천시청(지청장 이정수)은 '19. 10. 29.(화),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를 향상하고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'공무원 행동강령 평가'를 실시하였습니다.

## 청렴 상식이 쑥쑥!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깨끗한 나라, 뉴질랜드

푸른 초원과 쪽빛 하늘,  
청정한 자연하면 제일  
먼저 떠오르는 나라 **뉴질랜드**는 국제투명성기구  
(TI)에서 발표하는 부패  
인식지수(CPI)에서 매년  
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**대표적인 청렴국가**입니다.



뉴질랜드는 2017년 CPI순위에서 세계 180여개국 중  
1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1995년 순위가 처음  
발표된 이래 4위 아래로는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.

### 청정한 자연 만큼이나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?

2004년 7월, 당시 뉴질랜드의 총리였던 헬렌 클라크가 탄 관용차량이 지방을 순시하던 중 공무일정에 늦어져 과속을 하자,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,  
2009년 11월에는 부총리였던 빌 잉글리시가 이발을 하는 동안 이발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량이 주차위반에 단속되어 벌금을 물기도 하였습니다.

위와 같이 뉴질랜드는 **공직자의 교통법규 위반 조차도 지위나 상황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고,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**이 보편화 되어 국민 모두가 부패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사회적 의식과 함께 공공정보법 등 **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공공정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**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공직 사회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또한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는 반부패 특별기구인 **중대 비리조사청(SFO)**을 운영하여 뇌물과 사기 등 부패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

**사소한 규칙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**  
뉴질랜드가 청렴국가로 확고한 자리를 지키는데  
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## 상식이 쑥쑥! 선물이 팡팡! 청렴 퀴즈 이벤트



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~!

구사(丘史, 일종의 수행원)없이 종 두 명만을 자신의 말 앞·뒤에 두고 가는 정석견의 초라한 행렬을 보며 사람들이 일컬은 말로, '세 사람이 일렬로 걸어가는데 모습이 마치 산자 같다'는 뜻의 이 성어는 무엇일까요

- ① 산자관원(山字官員)    ② 일자관원(一字官員)

※ 힌트 : Monthly청렴 11월호를 참고하세요~

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**10명**을 추첨하여 **문화상품권(2만원 상당)**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.  
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

- ★ 응모기간 : 2019. 12. 16.까지  
★ 응모방법 : 700spo69a@spo.go.kr

지난 11월 정답은 **② 낙전** 이었습니다.  
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^^



**축!** 현○○(대구서부), 이○○(서울남부), 김○○(수원), 김○○(진주), 윤○○(서울동부), 민○○(의정부), 홍○○(강릉), 김○○(천안), 김○○(중앙), 백○○(외부)



## 민원인의 목소리

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

전화를 받고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당직을 서고 없다며 민원인인 저에게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, 직장 문제로 힘들게 시간을 내 방문했는데 헛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.

연락을 받고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왔던 민원인은 얼마나 불쾌했을까요?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면 대직자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부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.

열람등사 절차에 대해 불편한 점은 있지만 법에 규정되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,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친절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

순천지청 열람등사(재판중)실 직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칭찬 의견이었습니다. ♪

